



주간 중국 창업

제 269 호 (2022. 03. 02)

발행처 :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전화 : +86-10-6780-8840

센터장 : 김종문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Weekly 뉴스

- ▶ 베이징 ‘14차 5개년’ 첨단산업발전 계획 I — 평파이뉴스(澎湃新闻) p2
- ▶ RCEP 발효 후 중국 고신구 지역의 발빠른 대처 움직임 — 소후왕(搜狐网) p6
- ▶ 대학 졸업생 창업 지원 정책 —인력자원사회보장부 p10

CHINA 창업

- ▶ 【기업분석】 후룬연구소, ‘2021 후룬 차이나 Top 500’ 발표 p12
- ▶ 【산업분석】 중국 핀테크산업 발전 보고서 p18
- ▶ 【기획/산업단지】 상하이 항구 연안 지역 해외 투자 정책 I p22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p26

KIC 중국 NEWS

- ▶ 【KIC 행사】 KIC&HICOOL 2022년 글로벌 창업대회 안내 p29
- ▶ 【KIC 행사】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K-토크 데이’ 교류 간담회 개최 p30
- ▶ 【KIC 행사】 2022년 KIC 중국 창업대회 안내 p32

Weekly 뉴스

1. 베이징 '14 차 5 개년' 첨단산업발전 계획 I — 평파이뉴스(澎湃新闻)

베이징시는 작년 8월 발표한 <베이징시 '14 차 5 개년 계획'기간 첨단산업 발전 계획>을 통해 2025 년과 2035 년까지의 베이징시 첨단산업에 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 2 회에 걸쳐 그 내용을 살펴본다.

<베이징시 '14 차 5 개년 계획'기간 첨단산업 발전 계획>에서는 2025 년까지 베이징의 첨단산업 부가가치가 지역 GDP 비중에서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제조업 부가가치가 지역 GDP 의 13% 이상, 가능한 15%를 차지하도록 하며, 조 위안급 산업 클러스터를 4~5 개 형성 및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업의 영업수익이 3 조 위안에 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선진 제조업 기업 수량이 500 개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1) 2025 주요 목표

첨단산업을 비롯한 실물경제의 기반을 더욱 든든히 다지고 스마트제조·산업인터넷·바이오헬스 등을 새로운 중심 산업으로 하는 현대산업 시스템을 형성하며, 집적회로·스마트 커넥티드카·블록체인·혁신 약품 등이 '스마트 베이징', '서비스 베이징'의 새로운 간판이 되도록 한다. 장비의 중국 국산화 비율을 더욱 높이고, 생산 효율성은 세계 선진 수준까지 높이며, 동시에 친환경 발전 또한 꾀한다. 이를 통해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산업 공동 발전과 국제 생산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

2) 비전 2035

2035 년까지 베이징 첨단산업 부가가치를 지역 GDP 비중에서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제조업 부가가치를 이상적 수준으로 유지하며, 조 위안급 산업 클러스터를 8-10 개 형성하고,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업 영업수익과 일정 규모 이상의 첨단 제조 기업 수가 계속 증가하도록 할 것이다.

3) 미래 첨단산업 신시스템 구축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과 동시에 세계를 선도하는 2 개의 기동 산업, 특색 우위를 지닌 4개의 '베이징 스마트 제조' 산업, 혁신적인 연결을 가진 4 개의 '베이징 서비스' 산업과 다수의 미래형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2441' 첨단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첨단 산업 2.0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든다.

① 양대 글로벌 선도 기동 산업: 차세대 정보 기술과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정보 기술 산업**

첨단 분야와 핵심 과정에 주력하여 많은 고품질 브랜드 기업과 특색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한다. 하이덴구·차오양구·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배치하여 2025 년까지 차세대 정보 기술 산업 영업수익이 2 조 5 천억 위안을 달성하도록 한다.

산업	분야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급 AI 연구센터·초대형 AI 모델 훈련 플랫폼 구축 ○'데이터셋트' 생산과 선도적 시범구 지원, 융복합 산업 지원 ○국가 AI 역량지원센터 건립 ○'AI+칩, AI+정보 소비, AI+도시 운영'의 1000 억 위안급 슈퍼 기업 3 개 정도 육성 ○<베이징 AI 합의> 등 윤리 안전 규범 확립 ○중국 최초의 AI 거버넌스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모델 확립
	첨단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관춘과학성·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중관춘차오양단지를 지원하여 5G 부품프로젝트 및 무선장치 산업센터와 R&D 제조기지 건설 ○6G 관련 산업 배치하여 6G 산업 표준 고지 점유
	초고화질영상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관춘과학성·따싱미디어산업기지·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를 지원하여 베이징 초고화질영상제작기술 협동혁신플랫폼 과 베이징 초고화질 TV 응용 연구소 건설 ○8K 기술 표준 배치 및 연구개발 ○Micro LED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산업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 전문 산업인터넷 플랫폼 육성 ○협업오피스·상품구매 담당·스마트홈에서 첫번째 중국 선진 플랫폼 구축 ○산업인터넷과 융합한 상품과 솔루션 지원 ○징진지(京津冀)협력발전모범구 건설, 지역과 시장 주체를 넘나드는 협업 시스템 형성
	네트워크보안 &정보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네트워크안전산업원을 캐리어로 삼아 기업 집적 효과와 우수기업 육성 달성, 하이덴구·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통저우구에 중점 배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정보혁신플랫폼 개발
	베이더우 (北斗) 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더우 산업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베이더우 산업생태계 건설 ○베이더우와 5G, IoT, 지리정보, 도로 협업, 무인 시스템과의 기술융합 ○통신·항법·원격 감지가 일체화된 응용 탐색
	가상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징산(石景山)중관춘가상현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산업 강화 ○콘텐츠 생산 도구와 가상현실 상품과 서비스 지원

▶ 바이오헬스 산업

신(新)약·신(新)의료기기·신(新)의료서비스의 3 대 방향에 집중하고, 백신·차세대 항체치료제·세포·유전자치료·중국산 첨단의료기기 방면에서 선도적 우위를 구축한다. 제약과 건강 서비스 동시 발전 추구하며 북부로는 창핑구·하이덴구, 남부로는 따싱구·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2025 년까지 바이오헬스 산업 영업 이익 1 조 위안을 달성하고, 그 중 제약업이 4000 억 위안에 도달하도록 한다.

산업	분야	내용
바이오헬스 산업	신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H 제도(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 제도) 전면 시행을 기회로 CRO(합동연구조직), CMO/CDMO(합동생산/연구생산조직) 등 플랫폼 서비스 시스템 개선, 핵심 신약 산업화 ○항체치료제 산업플랫폼 건설 및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 ○유전자 편집 플랫폼 구축 ○백신 산업화 생산기지 구축
	신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 소모품·고급 의료 영상 장비·체외 진단·바이오테크 검측기 등에서 중국 대표 상품 육성
	신 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산학연 일체의 바이오테크 혁신 플랫폼형 병원 건립 ○온라인의료·스마트 건강관리·의료 AI·중의 디지털화 촉진 ○바이오헬스 혁신 기술과 맞춤형 뷰티헬스 영역 확장 지원

②스마트 베이징 4대 특색 우위 산업 강화

산업 구분	발전 목표	해당 분야
집적회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제조·장비·재료가 일체화된 집적 회로 산업 혁신 고지 건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 형성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하이옌구·순이구 위주로 추진하여 2025년까지 영업수익 3000억 위안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적회로 혁신 플랫폼 ■집적회로 설계 ■집적회로 제조 ■집적회로 장비
스마트커넥티드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순이·방산을 위주로 네트워크 생태 시스템 구축 ○세계 정상급 스마트커넥티드차 혁신전략기지와 산업 인큐베이팅기지로 육성 ○2025년까지 자동차산업 부가가치를 7000억 위안으로 올리고, 스마트 커넥티드차(L2 이상) 보급률이 80%이상으로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커넥티드 완성차 ■스마트 커넥티드 설비와 핵심부품 ■스마트운행서비스
스마트제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제품 스마트 제조'를 주요 방향으로 하여 베이징 제조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창핑·방산을 위주로 2025년까지 스마트제조설비산업 영업수익 1조 위안을 달성하고 그 중 스마트설비 분야가 3000억 위안에 달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로봇&자동화 설비 ■스마트 전문 설비 ■스마트 제조 시스템과 솔루션 ■스마트 디바이스-AR/VR 기기·웨어러블기기·IoT 제품 개발 ■항법항공-상업 항공 네트워크·부품·드론 분야 ■선로교통-풍타이구 위주 열차통신 제어 시스템 첨단화
친환경에너지와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창핑·팡산·따싱을 위주로 배치하며 2025년까지 5,500억 위안의 영업 수익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전력네트워크와 축전 기술 ■친환경제조시스템과 솔루션 ■스마트화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종합 서비스-물, 공기, 토양, 쓰레기 다영역에서 협업하여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2. RCEP 발효 후 중국 고신구 지역의 발빠른 대처 움직임 — 소후왕(搜狐网)

편집자 주: RCEP 소개-

RCEP 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 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 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등 15 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 년 11 월 4 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 년 11 월 15 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2022 년 1 월 1 일 기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 2022 년 2 월 발효됐다.

인구(22 억 6000 만 명·29.9%), 무역규모(5 조 4000 억 달러·28.7%), 명목 국내총생산(26 조 3000 억 달러·30%) 등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는 명목 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 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 조 6000 억 달러)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한국의 가장 큰 성과는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의 규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의 석유화학과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에서도 관세가 사라진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1) RCEP 규칙

전체 상품 무역에서 관세가 없는 제품의 수가 90%를 초과하고, 서비스 및 투자 무역에 대한 개방 수준이 기존 양국 간 자유 무역 협정보다 훨씬 높다.

기업에게 RCEP 발효 후 가장 큰 혜택은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비용 절감 및 수출 기회 증가다. RCEP 가 발효된 날 많은 수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0 으로 인하되었다. RCEP 협정에 따르면 상품 교역의 90% 이상이 궁극적으로 제로 관세를 달성할 것이며 주로 즉각적인 제로 관세와 10 년 동안 제로로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빠른 기간 내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원산지 누적 규정: 제조 지역의 누적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제품의 원산지 가치 성분은 15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 내에서 누적될 수 있으며, 상품 원산지 부가가치 성분이 15 개 회원국에 속하고, 누적 부가가치가 40%를 초과하면 상응하는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규칙은 협정에서 우대 세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의 생산 비용 최소화와 무역 효율성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의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② 통관 절차 및 무역 편리화: RCEP 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판정, 도착 전 처리 및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진한다. 전체 상품 통관 시간은 더욱 단축되어 국경 간 쇼핑이 보다 편리해지며 신선 제품에 대한 빠른 통관이 이루어져 해당 무역이 성장할 것이다.

쑤저우고신구(苏州高新区)는 RCEP 기회를 확고히 잡아 2021 년 전년 대비 8.8%의 수출 증가와 1.5% 증가한 무역 흑자 기세를 계속 몰아갈 계획을 잡고 있다.



사진 1) 출처: 봉황망(凤凰网)

2) 감세 비용 절감을 돕는 '기업 문제 제로' 매커니즘

쑤저우종합보세구역에서 쑤저우 지에더(捷德)항공기술회사는 헬기 수리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불량 부품 처리 문제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쑤저우 후치우(虎丘)해관사무처는 쑤저우자유무역구의 '증명 one 체인 통과' 시스템을 복제하여 제 3 자 공증기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작년 11 월 보수 폐기물 소각을 처리하도록 해주었다.

쑤저우 후치우(虎丘)해관사무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ATA 까르네 통관 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컨셉카 AVTR 벤츠가 중국-유럽 열차에 탑재되어 원활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쑤저우 박물관 서관 건립에 관해 대영 박물관 전시품 무담보 화물 통관을 승인하여 박물관 담보비용 4580 만 위안을 면제해 주었다.

3) 혁신

보세 종합구역 혁신 성과 전시관·선도 인재 혁신 창업 기지·국가급 음성 검측 서비스 센터·보세 연구개발 기업 서비스 기지·해외 음성학 혁신 연맹 등 종합보세구 5 개 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R&D 프로젝트를 집결하여 2021 년 전국 종합보세구 최초의 R&D 혁신 센터&산업화 기지가 쑤저우고신구에서 공개되었다.

쑤저우 후치우(虎丘)해관사무처와의 협력을 통해 쑤저우고신구 종합보세구역은 R&D 및 혁신 정보 플랫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감독 방식을 혁신하여 스마트 자동화 통관 관리를 구현했고 '하나의 창구'서비스센터를 건립하여 기업 관련 서비스를 통합했다.

4) 글로벌 판매를 위한 물류 효율성 향상

2021 년 4 월 27 일 쑤저우 후치우(虎丘)해관사무처와 상하이 푸둥 국제 공항 해관은 크로스 바우더리 전자상거래 협동 감독 메커니즘을 공식 가동하며 쑤저우가 전자 상거래 상품 글로벌 교역을 위한 상하이 이송 통로로서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 수출 물품이 쑤저우 해관에서 이전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세관으로 운송되어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통관 시간을 80% 단축할 수 있다.

이 채널이 열리면 전통 기업이 해외교역 전자상거래 모델에 따라 수출 제품을 통관하고 세금 환급을 처리하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실현하여 더 많은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관세 지역 협력 모델에서 고신구는 중국-유럽 철도(쑤저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열차가 성공적으로 개통하도록 지원했으며 처음으로 '9710(크로스 바우더리 전자상거래 B2B 직수출) 목록+중국-유럽 철도'방식을 채택해 화물 감독 방식으로 크로스 바우더리 전자상거래 B2B 비즈니스의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사진 2) 출처: 소후왕(搜狐网)

2021년에는 쑤저우해관과 물류 센터가 공동으로 '국제 화물 열차 취급 통합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는 연간 총 13,000개의 컨테이너가 출하되는 장강 삼각주 지역의 천여 개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쑤저우 중국-유럽 수출입 열차는 406대, 40피트 컨테이너 20,528개, 화물 가치는 22억 5,300만 달러가 운행되었다. 전년 대비 열차 수는 38.12%, 컨테이너 수는 38.14%, 상품 중량은 33.94%, 상품 가치는 66.52% 증가했다.

옌타이고신구(烟台高新区)는 RCEP 를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첨단 기술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 유리하도록 할 것이다.

옌타이고신구(烟台高新区)는 중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조직 과학기술 공원단지의 첫 번째 배치 지역, 중국 최초의 중러 하이테크 산업화 협력 시범 기지, 한중(옌타이)산업단지 동부 지역에 전략적 우위를 집중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4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국가급 한중(옌타이)산업단지와 성급 국제투자촉진산업단지 플랫폼 장점을 바탕으로 RCEP 회원국의 중국 내 외국 기관 투자 확대. 둘째 '산동성과 세계 500 대 기업과 연결'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경제 수익성이 좋은 외자 프로젝트를 발굴. 셋째, 산동성 다국적 기업 본부인 한국 애터미를 통해 크로스바우더리 전자 거래 무역을 확대하고 현지 제품을 적극 개발하여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에 참여 촉진. 넷째, 산업체인을 활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클러스터 확장.

자원을 통합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외자 기업의 중국 투자를 증대하고 옌타이고신구가 지닌 국제협력 산업단지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3. 대학 졸업생 창업 지원 정책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처는 <대졸자의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는 시범 조치 통지>를 발표하여 2022년 대졸자를 대상으로 200만 개의 우수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전국에서 창업이 취업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보이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1) 지원 내용

정부가 투자·개발한 인큐베이터 등 창업 육성기관은 대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장소를 30% 정도 배치해두고 있다. 조건이 되는 지방은 대졸자에게 인큐베이팅 기관에서 창업을 이루기까지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대학 졸업자는 등록한지 3년(36개월) 이내에 가구당 연간 한도액 12,000 위안내에서 그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도시 관리세, 교육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 개인소득세를 공제해준다.

최대한도는 20%까지 늘릴 수 있으며,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

졸업 후 창업하는 대학생은 규정에 따라 '5대 보험과 주택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대학 졸업자는 최고 20만 위안까지 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 대출자나 공동 창업을 하려는 조직은 대출 액수를 적당하게 더 높일 수 있다.

대출금이 10만 위안 이하이면서 시급 이상 단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기관 신용 평가가 좋은 대학 졸업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면제한다.

대졸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고 300만 위안까지 대출액을 높일 수 있다.

학업 시스템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학생의 학업 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학업 진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휴학 상태에서 창업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졸자 중 처음 소상공인 창업을 하였거나, 개인사업에 종사한 지 1년 이상 되었으면서 대학 졸업한지 2년 이내인 대졸자에게는 창업지원금을 1회 지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 재정부와 인사부문에서 정한다.

2) 세금 혜택

중소기업의 과세소득액이 100 만 위안 이하인 경우, 과세소득을 12.5% 줄여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 소득세를 20% 세율로 부과한다.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 만 위안 초과하나 300 만 위안이 안 되는 경우, 과세 소득의 50%를 감액하고, 기업 소득세를 20% 세율로 부과한다.

과세 소득이 100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절반으로 줄여 징수한다.

월 매출이 15 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월 매출이 10 만 위안 이하이며, 분기별 매출이 30 만 위안 이하인 경우 납부자에게 교육 부가세, 지방교육 부가세, 수자원 공사 기금을 면제해준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세액의 50% 이내에서 지방 '6 대 세금·양대 비용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토지 이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 경작지 점유세, 교육 부가가치세, 지방 교육 부가가치세]'을 감면해준다.

CHINA 창업

1. 【기업분석】 후룬연구소, '2021 후룬 차이나 Top 500' 발표

후룬연구소에서 <2021 후룬차이나 500 대 기업(Hurun China 500 Most Valuable Private Companies 2021)>을 발표하며 중국의 비영리 기업 상위 500 개를 기업 시가 또는 가치 평가를 통해 나열했다. 상장사의 시가는 2021년 11월 19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했고, 비상장사의 가치 평가액은 동종업계 상장사나 최근 자금조달 상황 기준으로 산정했다.

1) 개요

<2021 후룬 차이나 Top 500> 순위 진입의 경계값은 전년 대비 90억 위안(39%) 증가한 320억 위안이었다. 상위 500대 기업의 가치는 전년 대비 10조 위안(18%) 증가한 66조 위안으로 2021년 중국 GDP의 60%에 해당한다. 평균 가치는 13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0억 위안(18%) 증가했다. 신규 진입한 176개사를 포함해 370개 기업의 가치가 전년대비 상승했고, 9개 기업이 전년과 동일했으며, 126개 사는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 전년도에 들었으나 올해 순위에서 탈락된 기업은 180개 사였다. 56%의 기업이 B2B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44%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77%의 기업이 실제 제품을 제공하고 23%는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후룬[胡润, 후룬바이푸(胡润百富)동사장·수석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목록 보고서 핵심을 정리했다.

▶<후룬 차이나 Top 500>은 중국 민간 경제 발전의 '중추'로서 중국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의 연간 영업수익은 24조로 중국 GDP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1,1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 기회를 찾아 평균 가치는 지난 2년 동안 배 이상 증가해 1300억 위안이 되었다. 총 가치는 지난 2년 동안 30조 증가하여 66조 위안이 되었다.

▶CATL이 이끄는 에너지 산업은 올해 급성장하여 후룬 차이나 Top 500 중 두 번째 비중의 산업이 되었으며 마이루이(Mindray, 迈瑞)가 주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여전히 후룬 차이나 Top 500 내 최대 산업이다. 화공 산업은 6위에서 3위로 상승했고, 총 가치 비율 측면에서 텐센트와 바이트댄스가 주도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알리바바와 메이투안이 주도하는 소매 산업, 그리고 바이오헬스와 반도체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신규 진입한 기업과 탈락한 기업 목록에서 중국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다. 에너지, 화학, 바이오헬스 산업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전통 의학과 제약 소매, 부동산, 교육 산업은 쇠락하고 있다.

▶ 설립한지 10년밖에 안된 CATL의 가치는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한 1조 5000억 위안에 달해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며 5위를 기록했다. CATL은 미국의 유명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 다음의 세계 2위 에너지 기업이 되었다. CATL이 창출하는 가치는 중국석유와 시노펙을 합친 것보다 높으며 향후 탄소중립과 '3060' 목표를 볼 때 가장 왕성한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3060 편집자 주: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이르고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한다는 목표)

▶ 후룬 차이나 Top 500의 총 가치는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30조 증가했으며 바이트댄스, CATL, 텐센트를 필두로 가장 크게 성장한 상위 10개 기업은 7.6조 증가하여 전체에서 4분의 1을 차지한다. 최근 2년 동안 가치 상승폭이 가장 큰 상위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신에너지 관련 산업이며, 알리바바와 핑안보험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이 가치가 하락한 기업으로 각각 1조 3000억과 6000여 억 위안 하락했다.

현재, 중국의 가장 가치 있는 비국유 기업은 세계 최대 기업 5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애플의 시장 가치는 20조에 가깝고, 중국 텐센트와 TSMC의 시장 가치는 4조에 가깝다.

기업의 경제 실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치로 기업의 현재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력도 반영한다. 후룬 차이나 500에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 많이 있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직원 수가 10,000명도 안 되지만 높은 영업수익과 가치를 올렸다.

2) <2021 후룬 차이나 Top500> 중 상위 10대 기업

TSMC와 CATL이 상위 10위 안으로 올라섰고 핀둬둬(拼多多)와 Midea(美的)그룹은 각각 12위와 16위로 상위 10위권에서 내려갔다. 상위 10위권 기업의 총 가치는 목록 전체 기업의 29%를 차지하는 19조 위안으로 지난해 상위 10위권의 총 가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전과 베이징에 본사가 가장 많아 각각 3개 사였고, 항저우가 2개 사로 그 뒤를 이었다.

순서 (변화)	기업명	기업가치 (억 위안)	가치 증감폭	산업분야	본사
1-	텐센트홀딩스 腾讯控股	39,000	-22%	인터넷서비스	선전
2*	TSMC 台积电	36,900	신규 등록	반도체	신주(新竹)
3(-1)	알리바바 阿里巴巴	24,800	-48%	전자상거래	항저우
4(+5)	바이트댄스 字节跳动	22,500	221%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베이징
5(+6)	CATL 宁德时代	14,900	151%	리튬전지	닝더(宁德)
6(-3)	메이투안 美团	14,100	156%	생활서비스	베이징
7-	화웨이 华为	10,000	-9%	스마트폰, 전자정보솔루션	선전
7(-2)	앤트그룹 蚂蚁集团	10,000	-29%	핀테크	항저우

9(-1)	징동그룹 京东集团	9,010	-10%	전자상거래	베이징
10(-6)	평안보험 中国平安保险	8,910	-40%	금융	선전

표 1) 출처: 후룬연구소 <2021 후룬 차이나 Top500> 중 상위 10 대 기업, *신규 진입

3) 도시 분포

도시별로는 상하이가 베이징을 제치고 69 개로 500 대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고, 베이징이 그 뒤를 이어 68 개, 선전이 45 개로 3 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둥성이 87 개로 1 위이며 올해 홍콩, 마카오, 타이완 기업이 새로 추가되면서 다른 성의 기업 수 감소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타이완, 홍콩, 칭하이 기업이 처음으로 500 위권 안에 진입했다. 광시(廣西), 하이난(海南), 헤룽장(黑龍江), 지린(吉林), 씨장(西藏), 마카오(澳門) 지역에서는 500 위권 안에 든 기업이 없었다. 장강 삼각주 지역에서 총 177 개 기업이 상위 500 대 기업에 진입하여 전국의 35%를 차지했으며 위에강아오타이완 지역(粵港澳大湾区)은 총 117 개 기업이 진입해 전국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했다.

순위	본사지역	기업 수	비율	성
1	화동(华东)	257	51%	산둥, 장쑤, 안휘, 상하이, 저장, 장씨, 푸젠, 타이완
2	화남(华南)	117	23%	광둥, 광씨, 하이난, 홍콩, 마카오
3	화북(华北)	84	17%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내몽고
4	화중(华中)	20	4%	허난, 후베이, 후난
5	서남(西南)	14	3%	쓰촨, 귀저우, 윈난, 충칭, 씨장
6	서북(西北)	9	2%	산시(陝西), 간쑤, 닝샤, 칭하이, 쑤장
7	동북(东北)	3	1%	헤룽장, 지린, 랴오닝

표 2) 출처: 후룬연구소 <2021 후룬 차이나 Top500>, ↑작년보다 상승 ↓작년보다 하락 -작년과 동일 * 신규 진입

4) 산업 분포

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Top500 중 두 번째로 많은 산업이 되었고, 화학 공업도 6위에서 3위로 상승했으며, 의료는 여전히 500대 기업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산업이다. 총 가치 비중 측면에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매, 의료, 반도체 산업의 총 가치는 전체 목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①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

가치 증가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은 바이트댄스, CATL, 메이투안이었다. 증가폭이 가장 큰 기업은 태양광업체 트리나솔라(天合光能)와 화학공학업체인 HOSHINE (合盛硅业)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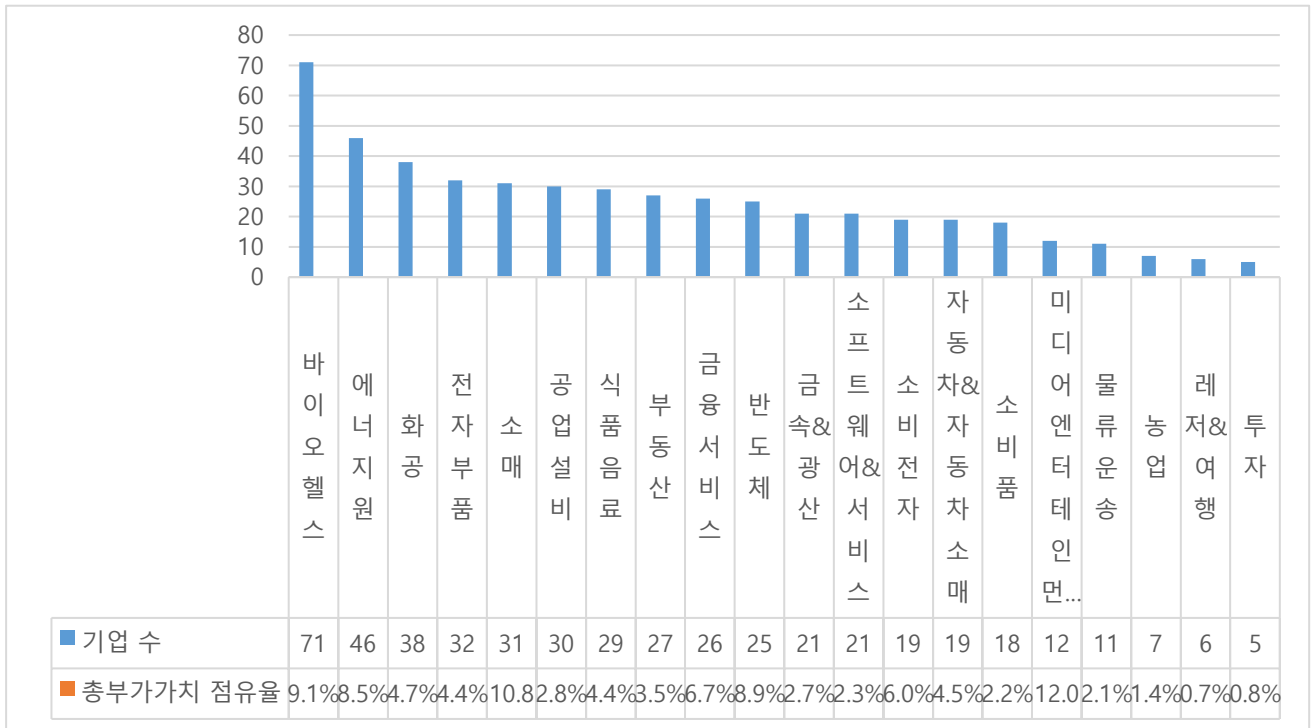


표 3) 출처: 후룬연구소 <2021 후룬 차이나 Top500>, 산업분포

순위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	가치 증가액 (억 위안)	산업	순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	가치 증가폭	산업
1	바이트댄스	15,500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1	티엔허광닝 (天合光能)	576%	태양광발전
2	CATL	8,970	리튬전지	2	HOSHINE (合盛硅业)	529%	화학
3	메이투안	8,600	생활서비스	3	양광전원 (阳光电源)	406%	신에너지원전설비
4	BYD	3,600	자동차·휴대폰 부품 제조/조립	4	티엔지(天齐) 리튬업	388%	광업
5	장청자동차	2,780	자동차	5	샤오홍슈 (小红书)	271%	소셜, 전자상거래
6	룽지(隆基) 홀딩스	2,020	실리콘재료	6	티엔츠(天賜) 재료	259%	화학원료제품
7	양광전원 (阳光电源)	1805	신에너지전원 설비	7	화요우(华友) 코발트업	244%	유색금속
8	HOSHINE (合盛硅业)	1480	화학공업	8	바이트댄스	221%	미디어엔터테인먼트

9	야오밍(药明) 생물	1450	바이오헬스	9	커위쓰(科沃斯)	219%	로봇
10	티엔허광(天合光能)	1440	태양광발전	10	징아오(晶澳) 테크놀로지	196%	태양광발전
10	이웨이리닝(亿纬锂能)	1440	리튬전지				

표 4) 출처: 후룬연구소 <2021 후룬 차이나 Top500>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

②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

가치 하락폭으로 보면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 지난해 가장 많이 하락했다.

③ 영업 수익

2020년 상위 500대 기업의 영업 수익은 총 24조 위안으로 기업당 평균 연간 영업수익은 509억 위안인 셈이다. 219개 기업은 연간 영업수익이 100억 위안 미만이었으며, 24개 기업은 10억 위안 미만이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이 바이오헬스 산업이었다.

④ 직원 수

상위 500대 기업에는 총 1,100만 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기업당 평균 22,000명이다.

상위 500대 기업 중 262개 기업이 직원 수가 1만 명 미만이고, 그중 아날로그 칩 기업 쓰루이푸(思瑞浦), 혁신 바이오 제약 기업 티엔징바이오(天境生物), 신소재 기업 티엔나이테크놀로지(天奈科技)가 가장 적어 모두 200여 명 정도였다. 20개 사 직원 수는 10만 명 이상이고, 홍하이정밀(鸿海精密), 중국핑안보험(中国平安保险), 징둥그룹의 직원 수는 각각 88만 명, 36만 명, 31만 명이다.

⑤ 상장 거래소

상위 500대 기업 중 88%가 상장기업(일부 상장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2% 증가했고, 12%는 비상장기업이다.

순위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수
1-	선전증권거래소	143
2-	상하이증권거래소	142
3-	홍콩증권거래소	119
4*	타이완증권거래소	41
5↓	나스닥	14
6↓	뉴욕증권거래소	13

표 5) 출처: 후룬연구소 <2021 후룬 차이나 Top500>, -작년과 동일 ↓작년보다 하락 *신규 진입

*출처: 후룬바이푸(胡润百富)

2. 【산업분석】 중국 핀테크 산업 발전 보고서

핀테크 산업은 4 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인구 증가와 전자상거래 발전에 힘입어 중국은 핀테크 산업이 세계 선두 규모로 빠르게 발전했다. iResearch(艾瑞咨询)가 발표한 <2021 년 중국 핀테크 산업 발전 통찰 보고서>을 위주로 중국 핀테크 산업 동향을 살펴본다.

1) 핀테크 산업 개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2019 년 1112 억 달러에서 오는 2025 년에는 1918 억 달러, 2030 년에는 3253 억 달러로 전망된다. 핀테크 벤처에 대규모 자본 유입이 급증하면서 투자 총액과 거래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KPMG 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 세계 총 핀테크 투자액은 980 억 달러(2456 건)로 전년 하반기보다 10% 늘었다. 비대면 결제 거래는 2024 년 6 조 달러로 2020 년보다 3 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최근의 핀테크 트렌드는 ○모바일뱅킹 ○디지털 무점포 은행 ○실시간 해외 결제 ○오픈뱅킹(은행과 금융서비스 업체의 통합 서비스) ○빅데이터 수집 ○블록체인·인공지능·머신러닝 서비스 ○사이버 보안 ○서비스형 뱅킹(제3자에게 의뢰) ○규제 기술 ○개방형 뱅킹 ○생체 인식 ○로봇공정 자동화(RPA)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무현금·음성 지원 결제 ○고객지능·개인화 서비스 ○모바일 지갑 등으로 정리된다.

2) 중국의 핀테크 산업 특징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전자상거래업체로 시작한 알리바바의 성공을 뒷받침한 중국 규제완화의 특징을 '유연한 규제'와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 등 2 가지로 분석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택했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식이다.

알리바바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2004 년 알리페이를 시작해 대출중개, 신용평가, 온라인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도 영향을 미쳤다. 금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한 신산업 성장 촉진에 유리하게 작용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새로운 핀테크 산업에 대해 특구와 같은 일정 지역, 혹은 시범 기업들에게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기업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높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또 핀테크 산업에 대한 칸막이 규제가 없어 다양한 금융 사업이 통합된 모델을 탄생시켰다.

다만 2020 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너무 급격히 커지는 핀테크 기업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11 월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 증시 상장을 중단시킨 데

이어 올 4 월 징둥닷컴의 핀테크 자회사인 징둥테크놀로지(京东数字科技控股)의 IPO(기업 공개)도 중단시켰다. 이어 지난 4 월 13 일 중국인민은행은 텐센트를 비롯한 13 개 IT 기업을 소환해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주요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플랫폼이 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의 30%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금 충당'이 문제로 꼽힌다.

2020 년 중국 금융기관의 기술 투자 누적액은 2,691 억 9 천만 위안에 달했으며 중국 핀테크는 이미 신뢰할 만한 기술의 스마트 발전 시대에 들어섰다. 2021 년은 'FinTech 3 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으며, 중국 핀테크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3) 중국 핀테크 산업 발전 분석

① 정책 발전 개요: 2021 년에 중국 핀테크 혁신 감독 파일럿 참가자 유형과 수량, 구현 장면이 더욱 발전했고, 금융혁신 대중화와 친환경 금융의 기초하에 농촌 금융혁신 혜택 보급, 고령자 혜택 보급이 장려하는 방향이었다.

② 시장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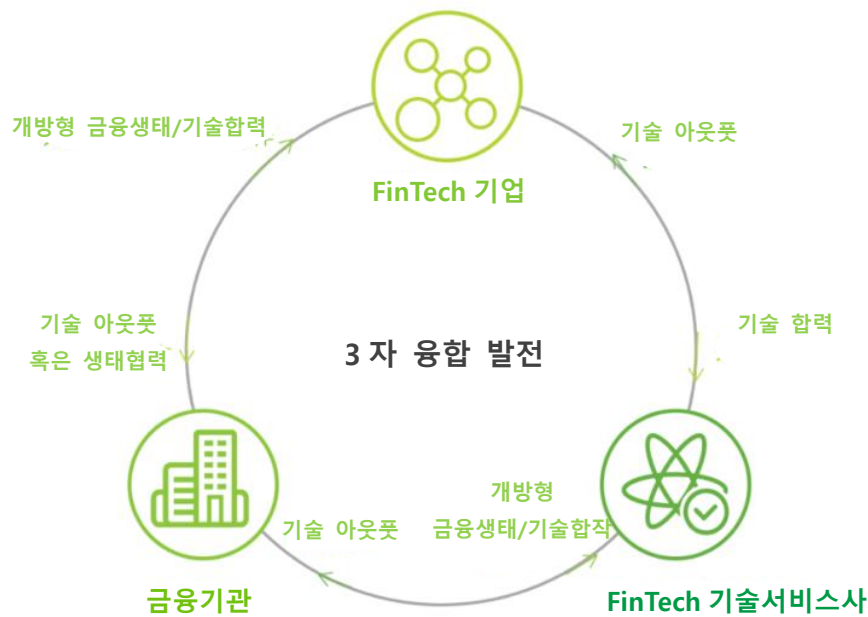


그림 1) 출처: iResearch(艾瑞咨询)

③ 응용 혁신: 디지털 인민폐로 대표되는 금융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현되고 금융기관은 데이터 거버넌스, 글로벌 디지털화, 금융 개방 등의 전략을 시행했다. 데이터 컴퓨팅과 개인 정보 보호 컴퓨팅 기술이 주목을 받았고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기술을 통한 원격 비디오 뱅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SalesTech'가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간주되고 있다.

④중국 금융기관의 기술투자: '핀테크 3개년 계획'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은행을 대표로 하는 금융기관의 기술투자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2020년 은행·보험·증권 기관의 기술 투자 누적 금액은 2,691.9억 위안으로 2024년에는 5,754.5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몇 년 동안 금융 기관의 기술 투자 및 디지털 혁신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이다. 첫째, 기본 기술 구축 및 업그레이드: 분산 코어 시스템 및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본 기술 및 도구에 투자, 업그레이드한다. 둘째, 비즈니스 수요 지향적 디지털화: 기관 자체 업무에 대한 디지털화 니즈를 충족하고 '생산성 병목 현상 및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구축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 실천: 디지털 인민폐를 기반으로 실제 비즈니스 장면과 결합하여 스마트 계약 응용, 디지털 기술의 합법성 검토 등에 유의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기술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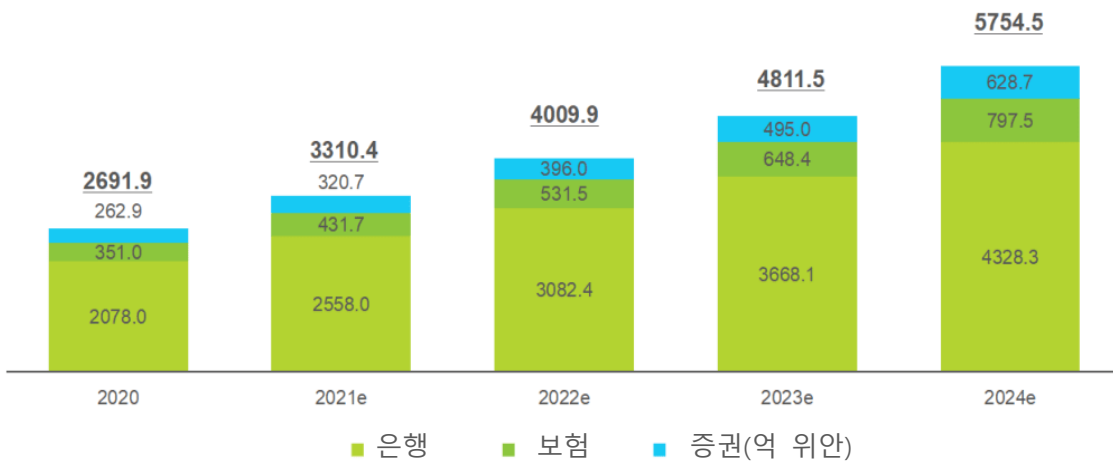


표 1) 출처: iResearch(艾瑞咨询), 2020~2024년 중국 금융기관 기술자금 투입 상황

4) 중국 핀테크 산업 발전 추세

향후 5년 동안 중국 핀테크 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할 것이며, 신뢰와 지능의 통합이 향후 10년 동안 핀테크 발전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이 지난 5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출발점이 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높은 기술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구축 단계에 있다. 시장 조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은행과 보험 기관은 현재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 정보 보호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 컴퓨팅의 실행은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추진되고 스마트 테크놀로지 산업과 협력 발전할 수 있음과 동시에 블록체인(프라이버시 컴퓨팅+블록체인)과 결합한 기술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어서 핀테크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풀스택 개발 기술과 전과정 업무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단계로 발전하고, 그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으로 인간의 개입이 현저히 줄어든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와 개인 정보 보호 컴퓨팅이 강화된 스마트 금융 심화 단계로 진입하여 협력 발전할 것이다.

또한 iResearch 는 <2021 중국 핀테크 TOP50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Top50 기업은 은행, 보험, 증권 기관 및 과학 기술 학술 기관에서 수십 명의 핀테크 전문가가 공동으로 선정한 핀테크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25개)와 핀테크 솔루션 기업(25개)으로 구성되었다. 이 목록은 '기술 혁신 능력과 기술 산출 능력'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핀테크 기업의 혁신 실천 유형을 보여준다.



표 2) 출처: iResearch(艾瑞咨询), 중국 핀테크 Top50 기업

*출처:

1. iResearch(艾瑞咨询): <2021 년 중국 FinTech 산업 발전 통찰 보고>
2. 한국경제연구소: '한중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방식 비교'
3. 아주경제: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방식 비교'
4. KOTRA 보고서: '中 핀테크 산업 규제 본격화'

3. 【기획/산업단지】 상하이 항구 연안 지역 해외 투자 정책 I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월 18일 발표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항구 연안 지역(临港新片区, 이하 임강신구라 칭함)에 관한 조례>에 관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여기에는 은행 시범 지점의 출항 후 위안화 업무, 크로스 바우더리 무역 결제, 해당 지역 내 개인의 해외 투자, 인민폐·외화 일체화 자금풀 등 많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임강신구(临港新区)는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강한 자유무역 단지/항만으로 포지셔닝하여 개방형 경제의 리스크 축정을 높이고, 첨단 산업 클러스터, 새로운 국제 무역, 첨단 국제 해운, 크로스 바우더리 금융 서비스로 대표되는 개방형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무역·자금·운송·중사 업종의 자유를 실현하고 정보의 빠른 연결을 보장하도록 한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투자의 편리

① 국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융 플랫폼을 임강신구에 건설한다.

- i. 국제 금융 자산 거래 플랫폼—국내외 투자자가 편리하게 글로벌 자원 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 ii.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벌크수송 상품 창고 입고 등록 센터—기업이 창고 입고 거래와 창고 물품 담보 대출 편의를 제공한다.
- iii. 국제 석유·가스 거래 센터—더 많은 거래 유형 도입을 지원한다.

② 시장 주체 등록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등록 기관은 시장 주체가 제출한 등록 자료에 대해 조사하고,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시장 참여자는 사업 허가를 받아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 주체 취소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시장 주체 취소 제도를 수립한다.

③ 외국 투자자의 중국 경내 출자, 이윤, 자본 수익, 자산 처분 소득,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사용료, 적법한 보상과 배상, 청산소득 등의 수익은 인민폐로 자유롭게 수령하고 송금할 수 있다. 임강신구의 금융기관은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 소득증명과 납세증명이 있으면 지급과 송금을 지연할 수 없다.

④ 외국 투자자의 투자는 징수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 이익 수요와 법규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징수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시장 가치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하며 징수일로부터 지급일까지 합리적인 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불한다.

⑤관리위원회는 임강신구에 등록된 현지 기업이 본 시 관할 내에서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등기 관리하며 기업의 해외투자 방향 지도와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투자가 우수하게 발전하도록 이끈다.

2) 무역과 운송의 편리

①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양산(洋山)특별종합보세구역은 수준 높은 무역 자유화·편리화된 감독 모델을 만들고 크로스 바우더리 전자 상거래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고, 크로스 바우더리 전자 상거래 국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②임강신구내 기업은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가 높고, 첨단 기술 수준이 높고 환경보호 요구와 부합한 보세 유지 수리 및 검사 업무가 가능하나 수리 및 검사 후 해외로 재배송해야 된다.

③임강신구의 시범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 및 첨단 의료 장비와 같은 오래된 기계 및 전기 제품을 수입하여 재제조 사업을 할 수 있다.

④국가의 통일배치에 따라 크로스 바우더리 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시한다.

⑤양산특별종합보세구역에 등록된 기업은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에서 운송서비스, 하역 서비스, 창고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국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⑥자격을 갖춘 수출 기업은 양산항 경내의 컨테이너 상품에 대해 국가 규정에 따라 수출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자금의 편리

①임강신구의 외상 직접투자 인민폐 자금 전용 계좌는 취소되며 자금 사용이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결제은행이 기업을 위해 자본금 진입 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다. 임강신구의 금융기관은 법규와 국제적 금융 감독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 계좌를 통해 편리한 역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임강신구 비금융 기업 외채 편리화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사모 투자 펀드의 국경 간 투자를 지원하며 국경 간 자산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 투자 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한다.

③국가 규정에 따라 국경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새로운 유형의 국제 무역 결제를 편리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임강신구 상업은행은 조건이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 외환 입출금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임강신구 내국인의 해외투자자와 해외 취업 인력의 국내 투자를 개방하며 금융기관이 해외유입 인재에게 편리한 국경 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⑤다국적 기업은 임강신구에 글로벌 또는 지역 자산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⑥임강신구내의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선물시장에 진출하여 상하이 관련 거래소에 의거하여 금, 석유 등 상품 투자를 모색할 수 있다.

4) 취업의 자유와 인재 보장 편리

①임강신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취업 서류증을 신청할 수 있고, 관리 위원회는 조건이 맞는 외국인 투자가, 고급 인재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임강신구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신청을 편리하게 하고 이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해외 우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임강신구에서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한 우수한 외국인 졸업생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임강신구에서 근무하는 적격 외국인 유학생은 직접 장기 해외 인재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임강신구의 해외 유학생 창업단지에 기업을 설립한 외국 국적 대학 졸업생의 경우 취업 허가증이 직접 발급되며 창업 경력을 업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임강신구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③임강신구 전문분야 외국 인재 고용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금융, 건축, 기획, 디자인 등 분야에서 유능한 전문 인력을 허용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력은 임강 신구의 법정 기관, 회사, 국유 기업의 법정 대표가 될 수 있다.

④임강신구의 적격 외국인 인재는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고용 외국인 직원을 위해 기본 의료 보험(출산 육아 보험 포함)을 신청할 수 있다.

5) 데이터 공유의 편리

①임강신구를 선도로 사마 국제 데이터 항구 건설을 촉진하고 국제 인터넷 데이터 전용 채널,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교환 센터 등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데이터 집계 및 유통 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

②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임강신구에서 리스크가 낮은 국가 간 데이터 흐름 목록을 탐색하고 제도화하여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흐름을 촉진한다. 임강신구에서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데이터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은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③시정부는 국제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데이터 중개, 데이터 운영 및 데이터 품질 평가와 같은 새로운 업태를 개발하며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법규 컨설팅 서비스, 정부기업 데이터 융합 개발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한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정보 서비스와 같은 부가 가치 통신 서비스의 시범지역 개방을 촉진한다.

④시정부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종합 서비스 플랫폼, 디지털 무역을 위한 국경 간 지불 결산 플랫폼, 데이터 서비스 수출 기지, 문화상품 수출 기지 등 디지털 무역 분야의 국가급 기지, 디지털 무역 인재 육성 기지를 건립한다. 디지털무역 규칙과 제도 구축을 모색하고 국제화된 디지털 무역 브랜드를 육성한다.

6) 첨단 산업 발전

①세계 정상급 과학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국제연합연구소, 과학기술혁신 전환 플랫폼과 주요 과학기술 시설을 배치한다.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민간 우주항공, 스마트 신에너지차, 첨단 설비제조, 친환경 재생산, 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②임강신구는 시장 참여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총요소 생산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관리 위원회는 도시의 에너지 효율성 지표 프레임에 따라 인공 지능 컴퓨팅 파워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지역 내 기업은 응용 장며 늘 개방하고 인공 지능 혁신 제품과 기술 응용을 연구 개발 비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③임강신구의 자격있는 의료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중국 시장에 유사한 제품이 없는 체외 진단 시약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자격 있는 의사의 지도 하에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시 산업당국의 동의를 얻어 임강신구 전역에서 스마트커넥티드카의 도로 주행 테스트, 시범 응용과 상업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간 인식과 검측, 실시간 클라우드 처리를 통해 고정밀 지도 제작을 시도할 수 있다.

⑤임강신구의 특정 지역에 수소 연료 전지 적용과 관련된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배치할 수 있다.

⑥임강신구에서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민간항공 등 핵심 분야 핵심 과정의 생산,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적격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⑦본 시에서 제정한 푸둥신구의 규정과 관리조치는 임강신구의 푸둥신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출처: 과징금융연구원 (跨境金融研究院) 探索个人境外投资! 上海临港新片区条例全文发布

텐센트 마화팅, 중국 반독점 규제에 직면 (비즈니스 포스트, 2022.2.24)

중국정부가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마화팅과 같은 중국 벤처기업인들에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텐센트도 중국 최대 인터넷 플랫폼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앞세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플랫폼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장려하며 텐센트뿐 아니라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여러 대형 플랫폼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다. 중국정부는 인터넷 기반 산업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며 플랫폼업체와 '원-원' 관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플랫폼기업들이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갖추게 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와 독점 방지를 빌미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텐센트도 쉽지 않은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정부 산하의 여러 관리감독부처는 최근 들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주요 플랫폼들에 각종 규제를 이유로 들어 대규모 범칙금을 여러 차례 징수하고 있다. 2020년 12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50만 위안(943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 시초로 꼽힌다.

중국 반독점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플랫폼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2021년은 중국 플랫폼 반독점정책의 원년으로 꼽힌다. 중국정부가 한 해 동안 결정한 반독점규제 처벌 안건이 118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89건은 플랫폼기업과 관련돼 있다.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12개 플랫폼기업이 2021년 3월에 각각 50만 위안(9435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마화팅 텐센트 회장은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머무르는 동안 시장감독관리총국을 방문했다. 마화팅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텐센트의 반독점규제 준수 여부에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텐센트가 최대주주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 최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와 도우위를 합병하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중국정부는 두 회사가 합병 뒤 게임 스트리밍시장에서 80%에 이르는 점유율을 확보해 독점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8 월에는 텐센트 산하 음원 스트리밍업체 텐센트뮤직과 뉴스서비스 자회사의 홍콩증시 상장 계획도 연기됐다.

텐센트뮤직은 이미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미국정부가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압박을 강화하자 대안으로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중국 상장기업에 감사기록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텐센트뮤직은 중국 당국 규제로 홍콩증시에 상장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9 월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텐센트를 포함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등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처는 미성년자의 게임중독 방지 차원에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이용자의 기준을 강화하라고 게임사들에 요구했다. 텐센트가 보유한 음악과 게임 등 여러 자회사들이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도록 압력을 넣은 셈이다.

2022년 1 월에도 중국 당국은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기업에 모두 13 건이 넘는 벌금을 새로 부과했다. 이 가운데 9 건은 모두 텐센트와 연관이 있었다. 벌금이 부과된 사유는 대부분 텐센트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전 관련법에 따라 독점 가능성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중국정부가 이전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규제를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텐센트와 같은 플랫폼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텐센트를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으려면 결국 규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압박을 강화하는 일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마화팅은 결국 중국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정책에 적극 순응하겠다고 '충성'을 다짐하게 됐다.

중국정부는 올해 2 월 개최한 '인터넷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업무 좌담회'에서 주요 IT 업계 총수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마화팅은 "앞으로 텐센트는 국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과학기술 발전을 견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마화팅은 결국 그동안 여러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텐센트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력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뀌어나가고 있다. 실제로 마화팅은 텐센트의 몸집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및 지분 정리작업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텐센트는 2021년 12 월 알리바바와 쌍두마차로 꼽히는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징둥의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20 조 원 규모의 징둥 주식 4 억 6 천만 주를 텐센트 주주들

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텐센트의 징등 지분율을 기존 17%에서 2.3%로 대폭 줄였다. 2022년 1월에는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씨(Sea) 지분을 21.3%에서 18.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씨 지분 매각으로 확보하는 자금을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마화팅은 2021년 말 송년행사에서 임직원들에게 "텐센트는 국가와 사회의 성장과 함께하는 평범한 회사이고 국가 발전의 수혜자"라며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고 지켜야 할 선은 넘지 않으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 방향을 공격적 확장에서 중국의 발전을 중심에 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화팅이 텐센트를 이끌어가야 할 방향은 중국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처들은 올해 1월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운영체제(OS) 등을 투자 권장 분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텐센트를 비롯한 거대 플랫폼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업 확장을 제한한 뒤 이들이 앞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 분야를 제시해 국가 경쟁력 발전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마화팅이 중국정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텐센트 계열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업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규제하는 흐름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미국기업은 게임과 동영상 등 여러 콘텐츠 분야에서 자체 플랫폼 결제를 강제한다는 이유로 여러 국가 경쟁당국에서 집중포화를 맞으며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플랫폼기업 카카오도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김범수 의장이 직접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되는 사업을 접고 글로벌사업 비중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김 의장은 당시 "카카오와 모든 계열사가 지난 10년 동안 추구해 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IC 중국 NEWS

1. 【KIC 행사】 KIC&HICOOL 2022 년 글로벌 창업대회 안내

KIC CHINA
Korea Innovation Center

X

HICOOL

2022 글로벌 창업대회

1 총 상금
억 RMB
(한화 약 187억 원 상당)

7 과학 기술
분야

7 출전
지역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차세대 정보기술
농업테크, 식품테크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첨단 설비

지원 기간 및 웹사이트 www.hicool.com

2021年12月-2022年4月30日

2. 【KIC 행사】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K-토크 데이' 교류 간담회 개최

KIC 중국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학생 등 창업을 꿈꾸는 청장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1)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나연 재외기자, 글로벌혁신센터 중국(KIC 중국)은 지난 2 월 21 일 저녁 베이징 한식당 자하문에서 'K-토크 데이'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혁신센터 중국(센터장 김종문, 이하 KIC 중국)은 지난 2 월 21 일 저녁 베이징 한식당 자하문에서 'K-토크 데이'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KIC 중국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및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 년 8 월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다.

이날 행사에는 KIC 중국 고영화 1 대 센터장과 이상운 2 대 센터장, 주중한국대사관 노경원 정보통신관, 류선미 중소기업관, 양경원 법무관, 하춘호 관세관,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윤석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등 약 80 명이 참석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장년들이 한자리에서 네트워킹하며 중국에서의 창업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서는 주중한국대사관과 KIC 중국이 공동으로 고영화 1 대 센터장과 이상운 2 대 센터장에게 재임기간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감사패 수여는 노경원 주중한국대사관 정보통신관이 했다.



사진 2)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나연 재외기자, 글로벌혁신센터 중국(KIC 중국)은 지난 2월 21일 저녁 베이징 한식당 자하문에서 'K-토크 데이'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년 4분기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에 참가한 기업들 수료증 수여

이어서 김종문 센터장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열린 2021년 4분기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 북경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의 대표들이 각자 회사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종문 센터장은 KIC 중국의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2022년 사업전략을 소개했다. 김종문 센터장은 오는 3월부터 <주간 중국창업> 월간지를 배포하고, 5월과 9월에 혁신창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창업교육, 혁신창업포럼, 학술대회,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열렸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예비창업을 꿈꾸며 KIC 중국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오늘 행사를 통해 멘토 강사들 외에도 기업가들,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교류했다. 코로나로 학교 안팎으로 활동이 제한돼 고충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희망이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문 센터장은 "KIC 중국에 여러 도움을 주시고 적극 협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각자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나 경험 등을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KIC 중국을 통해 창업가, 기업가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간담회를 통해 KIC 중국과 연관된 개인 혹은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이 유지되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3. 【KIC 행사】 2022년 KIC 중국 창업대회 안내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KIC 글로벌혁신센터
CHINA Korea Innovation Center

2022년 KIC중국 창업대회



주최/주관: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KOTRA 베이징 무역관
후원기관: 주중한국대사관/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Hyundai Creative Accelerator (HCA)
일 시: 2022년 3월 25일
장 소: CROWN PLAZA 北京中关村皇冠假日酒店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QR 코드

참가대상

예비 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15.2.15 이후 창업)
*자격요건 및 참가제외대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 참고(www.kicchina.org)
*언어: 한국어

참가분야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설비, 바이오헬스,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농업/식품 과학기술,
메타버스, 디지털문화콘텐츠, 디자인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 참고

대회일정

2022.02.15 ~ 03.13 참가자 신청 기간
2022.03.13 ~ 03.18 최종 참가자 선발 및 공지
2022.03.21 ~ 03.23 참가자 멘토링
2022.03.25 창업경진대회 개최

수상 및 혜택

대상 (1팀) 20,000RMB
최우수상 (1팀) 10,000RMB
우수상 (2팀) 5,000RMB

+ 하이쿨 HICOOL 창업경진대회연계지원
+ 한중일 창업대회 연계지원
+ 북경대 등 창업교육 프로그램 연계지원
+ KIC중국 CHINA梦 & CHINA路 연계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홈페이지(www.kicchina.org) "2022년 1분기 KIC 중국 창업대회" 접속 혹은 상단의 큐알코드 스캔
- 큐알코드 스캔 후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제출 info@kicchina.org
- 전화문의 86+010-6780-8840